

광주 스테이크 청녀 창립 기념 행사

1987년 11월 28일 광주 스테이크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청녀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다. “순결의 법”을 주제로 세미나와 라디오 극장, “합당한 음악 합당한 생각”이라는 필름스트립 상영 등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녀들로서 주님 앞에 보다 순결하고 합당하게 자신을 지키는 안전한 길을 배울 수 있었다. 청녀들은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나님의 딸로서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영원을 향해 아름답게 성장하고 말일성도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함을 잘 인식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세미나 연사는 농성 와드 김 지연 자매가 맡았다. □



서울 전 지역 합동 무도회

서울 전지역 8개 스테이크 독신성인의 직장단의 준비로 각 스테이크 산하의 귀환 선교사, 독신 성인 등 350명은 두 분의 지역 대표의 도움을 받아 1987년 10월 27일 KBS 88 체육관에서 합동 무도회를 가졌다. 서울 서 지역 대표인 최 육환 장로가 모임을 감리한 가운데 각 스테이크 부장단과 담당 고등 평의원들도 무도회 복장을 하고 부부 동반하여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었다.

진행은 북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이 이 형근 형제, 최 숙란 자매가 맡았으며,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차려 입은 독신 성인들이 다정스레 손에 손을 잡고 행진곡에 맞추어 행진하며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다.

신나는 포크 댄스에 의해 파트너를 바꾸고, 파트너와 신청자가 함께 하는 순서가 여러 번 있었다. 음악은 정통 왈츠, 슬로우 왈츠, 폴카, 포크 댄스, 차차차 등이 준비되었다. 휴식 시간에는 파트너 게임으로 시범 보이기, 풍선 터뜨리기 등의 즐거운 게임 시간이 있었다.

스테이크 대항 무용 발표 시간은 탱고, 차차차, 왈츠, 스케어댄싱, 민속 무용 등 스테이크마다 특색있게 준비해서 발표하였다. 참관자들은 독신 성인들도 복장만 제대로 갖추면 BYU 볼룸 댄스단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칭찬하였다.

정갈스럽게 준비된 부페식 식사 시간은 파트너와 그 외의 형제 자매와 우정과 사랑을 증진시키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곧 나잇 왈츠로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었다. 다섯 시간 반 동안에 걸쳐 진행된 모든 순서가 질서 정연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에 서울 스테이크 농아 지부 독신 성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많은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은 만남의 짧은 시간을 아쉬워 하며 다음에도 이런 모임을 연중 행사로 열 것을 의장단에 표시했다. □

연세대학교 LDS 씨클 발족

연세 대학교에 재학중인 말일성도 회원들은 오랜 숙원이던 씨클 조직을 학교 당국에 정식 등록함으로써, 사 개월간의 예비 모임의 결실을 거두었다. 김 종열(서울 선교부장단, 치대 예방의학) 교수를 지도 교수로 모시고 지난 11월 12일 오후 5시 학생회의실에서 역사적인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김 종열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젊은 학생들이 신앙 생활을 돈독히 하고, 우정을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우리의 종교관과 신앙은 전력투구해서 찾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원반 던지기에 비유하여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가장 멀리 던져야지, 원을 벗어 나서 던지게 되면 아무리 멀리 던져도 실격하게 된다고 하여 복음에 충실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 생활을 하되, 결코 교만하거나 안하무인격이

교회 및 지역 소식

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이게 하자고 하였다.

활동으로는 서 신학 연구원에서 매주 정규 모임을 가지며, 독어 회화, 복음 연구, 계보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등록된 회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에 배 동철 형제(미아, 정의 3), 부회장에 최 윤희 자매(신촌, 심리 1), 총무에 이 미경 자매(녹번, 간호 2), 민 경일 형제(신촌, 정의 3), 김 진원 형제(신촌, 경영 3) 지 석훈 형제(신림, 경제 1), 김 준영 형제(치의에 1), 서 영주 자매(불문 4), 김 태수 형제(정의 3), 이 선덕 자매(재활 4), 이 동규 형제(치의본 2), 윤 석준 형제(생물 3), 이 영해 제(대학원), 하 인홍 형제(경영 2), 이 상명 형제(건축 3)등 15명이며, 영문과의 Gilbert Boutrouix 교수도 회원이다. 그 밖에 연세 대학교에 재학중인 회원은 배 동철(성북구 성북 1동 1가 115번지, 전화 742-4246) 형제에게 연락바라며 졸업생들도 연락바란다. □

서울 선교부 영월 지부 조직

1987년 11월 22일 이 도환 선교부장과 그의 보좌인 정 민호 부장과 김 종열 부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영월 지부를 조직하였다. 지부장에는 김 대운 장로가 부름을 받았으며 그 모임에 참석한 성도는 45명이었으며 그 중 절반은

비회원이었다. 현재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는 김 대운 장로, 안 성진 장로, 에인슬리 장로, 테일러 장로이다. 영월 일대에 연고자가 있는 회원 여러분의 연락을 바란다. □
강원도 영월읍 영월우체국 사서함 7호
전 화 : (0373) 2-5217



김 명애 자매 서예 부문 솜씨 발휘



서울 선교부 강능지부 소속의 김 명애 자매는 지난 10월 26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 미전에서, 서예 부문에서 뛰어난 솜씨로 입상한데 이어 11월 5일에 '87 울곡제 경축 회화 대회에서도 차상을 획득, 구 향순체로써 해서에 능하다. 그녀의 장남인 김 주범 형제는 대전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

임 규희 자매 대상 수상

서울 북 스테이크 볼광 와드의 임 규희 자매(성도의 빛 87년 7월호 교회 및 지역 소식에 소개되었음)가 1987년 가을에 실시된 한국 예술 문화 협회가 주최한 제5회 한국 미술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문인화를 출품하여 대상을 차지한 임 자매는 1987년 봄에는 같은 미술제에서 최고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본인의 작품 옆에 서 있는 임 규희 자매



교회 및 지역 소식



말씀하고 있는 박 내정 강서 스테이크 부장



특별 찬송을 하고 있는 개봉 와드 합창단

강서 스테이크 대회

(1987년 11월 14~15일)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말라기 4:5~6)

영적인 잔치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북 스테이크 대회

(1987년 11월 21~22일)

성전 의식의 중요성과 성전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축복에 대해서 깨닫고 각오를 다지는 영적인 경험을 함

대회 안내를 하고 있는 회원들



말씀하고 있는 김 장선 장로



교회 및 지역 소식



말씀하고 있는 김 창선 장로

동대문 스테이크 대회

(1987년 9월 24~25일)

“그러나, 사나 죽으나 충실하여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생을 상속으로 물려 받을
것임이니라”(교성 50 : 5)



말씀하고 있는 손 승은 동대문 스테이크 부장

대구 스테이크 대회

(1987년 9월 19~20일)

“...해의 영광의 나라의 영화로운
관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교성
101 : 65)

영적인 잔치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영동 스테이크 대회

(1987년 10월 17~18일)

“...바울이 선조에 관하여 말한 것
같이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연고니라”(교성 128 : 15)



말씀하고 있는 최 육환 장로



말씀하고 있는 김 태우 영동 스테이크 부장